

보도시점 2026. 10. 3.(토) **배포 시** 배포 2026. 10. 3.(토)

경북 예천군 소재 소(牛) 농장 예찰 검사에서 구제역 확인

- 경북 예천 기존 발생 방역지역 내 예찰 검사과정에서 구제역 항원 양성축 10두 확인
- 발생농장 출입 통제, 항원 양성 개체 가축 처분, 전국 일제 소독 등 방역 조치

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이하 ‘중수본’)는 10월 3일(토) 경북 예천 소재한 소(牛) 농장(98마리 사육)에 대한 예찰 검사에서 구제역이 확인되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.

중수본은 이번 발생농장은 지난번 경북 예천 발생(확진일 : 9월 3일) 관련 방역지역(3km) 내에 위치하여 이동제한 등 관리 중인 소 농장으로 해당 방역지역 해제를 위한 예찰 검사과정에서 항원 양성축 10두를 확인하였다.

※ '26년 발생(총 14건) : 경북 예천 9건, 경기 고양 2건, 인천 강화 3건

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·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·가축·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, 발생 농장 가축에 대한 정밀검사 및 임상검사 결과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양성 개체 10두에 대해 처분할 계획이다.

* 임상증상이 있는 개체 또는 항원 양성이 추가 확인되는 경우 부분 가축 처분 실시

아울러, 발생지역인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*의 우제류 농장과 축산시설, 축산차량에 대하여 광역방제기, 방역차 등 가용자원 69대를 동원하여 농장 및 주변 도로 등에 대해 집중 소독·세척 등 특별관리한다.

* 경상북도 예천군·안동시·의성군·상주시·문경시·영주시 및 충청북도 단양군

또한,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전화예찰 등을 일제히 실시하고,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을 운영하여 전국 우제류 농장과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소독을 추진한다.

- * 관련 생산자단체(협회)와 함께 소독 주간에 농장에 지도·홍보(농장은 자체 대청소·소독 활동)
- * 축산차량은 내부(발판, 운전대 등) 및 외부(바퀴, 적재함 등) 일제 소독 추진

중수본은 “기존 발생지역인 경북 예천 지역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는 정밀검사, 집중 소독, 감염항체(NSP) 관리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”을 강조하고, “특히 발생지역의 축산농장은 누락 개체없이 빠짐없는 백신접종, 외부인 출입통제, 농장 내·외부 세척·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여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	책임자	과 장	김정주 (044-201-2531)
		담당자	서기관	이병용 (044-201-2532)

